



보도시점 2026. 10. 8.(목) 조간 온라인·방송 2026. 10. 7.(수) 12:00

2026 국제치안산업대전(KPEX), 인공지능(AI)과 로봇틱스로 여는 케이(K)-치안의 새로운 시대 (A New Era of K-policing with AI&Robotics)

- 경찰청, 10월 21일부터 4일간 「제8회 국제치안산업대전」 개최
-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로봇틱스 특별관 운영, 7개 기업 참여
‘순찰로봇 장비품평회’ 개최
- 해외 경찰·구매자(바이어) 수출상담회 등 케이(K)-치안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순찰하고, 드론이 경찰의 눈을 대신하는 미래 치안의 모습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치안산업 전시회가 열린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과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10월 21일(수)부터 24일(토)까지 4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8회 국제치안산업대전(Korea Police World Expo 2026)」을 개최한다.

올해는 ‘인공지능(AI)과 로봇틱스로 여는 케이(K)-치안의 새로운 시대’를 주제로, 인공지능과 로봇틱스를 비롯한 첨단기술이 치안 현장과 경찰 업무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집중 조명한다.

전시장에서는 모빌리티(Mobility)·로봇틱스, 개인장비·대테러, 범죄수사·감식장비, 교통장비·시스템, 사이버범죄 예방·대응, 영상보안, 사회안전·통합관제 등 치안·보안 전 분야에 걸친 첨단기술과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행사 첫날인 10월 21일에는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고 나흘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이어 해외 경찰 관계자와 해외 구매자(바이어), 참가기업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네트워킹 리셉션’을 개최해 참가자 간 교류를 넓히고, 국내 치안기업의 해외 협력과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글로벌 로보틱스 특별관’이다.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실제 치안 현장에서 로봇의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기술과 제품을 별도의 특별관에 모았다.

특별관에서는 순찰·경비·수색·재난 대응 로봇과 치안 드론 등 다양한 미래 치안장비를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로봇과 드론 등 첨단기술이 경찰관의 업무를 지원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제품을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치안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인지를 현장 경찰관이 직접 살펴보는 자리도 마련된다.

순찰로봇 관련 7개 기업이 참여하는 ‘순찰로봇 장비품평회’에서는 현장 경찰관들이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성능과 사용 편의성, 안전성, 현장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경찰청은 품평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기업에 전달해 제품 개선과 후속 기술개발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의 기술을 일방적으로 현장에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수요를 다시 기술개발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국제치안산업대전은 국내 치안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 무대로도 활용된다.

10월 22일에는 ‘KPEX 해외 경찰 수출상담회’와 ‘KOTRA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를 열어 해외 경찰기관 및 치안·보안 분야 구매자(바이어)와 국내 참가기업을 일대일로 연결한다.

지난해 행사에서는 역대 처음으로 행사 기간 중 633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이 체결됐다. 올해는 이를 넘어 690만 달러 이상의 수출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청은 해외 경찰기관과 유력 구매자(바이어)가 국내 기업의 제품과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고 구체적인 구매·수출 협의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상담 기회를 확대해 우수한 케이(K)-치안 제품의 해외 판로 개척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국내 공공시장 진출을 위한 자리도 마련된다.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와 참가기업 간 구매상담을 진행하고, 인공지능·사이버보안 등 미래 치안기술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콘퍼런스)와 발표회(세미나)를 포함해 총 4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품을 전시하는 데 머물렀던 기존 산업전시회의 틀을 넘어 기술 전시부터 현장 검증, 공공구매, 해외 수출까지 하나의 장에서 연결하는 치안산업의 종합 교류의 장(플랫폼)으로 역할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행사 마지막 날인 10월 24일(토)에는 전시회의 문턱을 낮춰 일반 시민과 가족 단위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도 열린다.

‘경찰장비 체험’에서는 순찰차와 드론, 스크린 사격 등 경찰 장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경찰관 채용 과정에서 실제 시행되는 체력검사를 경험해보는 ‘순환식 체력검사 체험’도 마련된다.

경찰청 박현수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인공지능과 로봇틱스 기술의 발전은 치안 현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다.”라며 “현장의 경험과 기업의 혁신기술을 긴밀히 연결해 국민안전을 위한 치안기술을 발굴하고, 우수한 케이(K)-치안 제품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치안산업대전 공식 누리집 (police-expo.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사 사무국(02-6121-6348)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담당 부서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치안연구개발산업과	책임자	총경	김인병	(02-3150-1900)
		담당자	경정	최운상	(02-3150-2605)

